

도내 상장법인 36곳... 전국 비중은 1.3%

전북상협,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 현황 조사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상장법인 수를 조사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상장법인은 총 36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13개사, △코스닥 20개사, △코넥스 3개사가 포함됐다.

4월말 기준 전국 상장법인 수는 총 2,761개사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2,007개사(72.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107개사(40.1%) △경기 805개사(29.2%) △충

남 109개사(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36개사로 전체의 1.3%에 불과해 수도권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전국 상장법인 수는 총 76개사가 증가했으며, 18개 시도(해의 포함) 중 12개 지역에서 증가, 3개 지역은 감소, 나머지 3개 지역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경기(772→805)는 33개사, 서울(1,085→1,107)은 22개사, 대전(56→65)은 9개사가 각각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이외 대부분 지역은 미미한 변동에

그쳤다.

전북은 본점을 광주에서 김제로 이전한 (주)다에이치오토텍스(코스피,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와 강원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이전한 세브브로이팩주(주)코넥스, 알코올 음료 제조업)의 영향으로 상장법인 2개사가 증가했다.

다만 전주시에 소재한 (주)카이바이오텍(코넥스, 의약품 제조업)이 상장 폐지되면서 결과적으로 전북의 상장법인은 1개사가 순증했다.

전북 내 자치단체별 상장법인 수는 △군산시와 △익산시가 각각 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완주군 7개사, △전주시 4개사, △정읍시 3개사, △김제시 2개사, △정수군과 △

부안군이 각각 1개사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10개사) △화학·의약품(8개사) △음식료(5개사) △자동차·운송(4개사) △금속·기계(3개사) △금융(3개사), △종이·플라스틱·소매업이 각각 1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기업 상장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며 우수 인재 확보에도 유리하다”며, “상장기업이 늘어날수록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축산인이 돈벌고 신바람 나는 '해피컨설팅' 실시

전북농협과 무진장축협은 무진장축협 본점에서 지역축산인 30여명을 대상으로 국내의 시장환경 변화 설명, 자산증식 방법등을 주제로 '경제관련 해피컨설팅'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축산농가에 자산관리 마인드 제고 및 전문경영인 자질 함양을 강화하여 돈벌고 신바람나는 축산분위기 확산 및 행복한 축산인 육성을 위하여 마련됐다.

'해피컨설팅'은 전북농협이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시대를 맞아 축산인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2025년에는 경영(경제특강), 신바람(마술), 세무(세무특강)로 구성하여, 연 3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환 본부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2025년 대·중소 상생형 포스코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모집

중기중앙회, 중기부-포스코와 '고도화'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와 포스코는 5월 23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서 접수는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포스코와 함께 2019년부터 6년간 총 400여 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기반을 마련해왔다.

올해 사업에서는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한 질적 고도화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예정으로 포스코와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 4억원 이내의 경우 업체당 최대 2.4억원(총 사업비

의 60%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동반성장지원단을 통한 포스코 기술 노하우 전수를 통해 더욱 내실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의 동반성장지원단은 평균 25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조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 취약영역을 진단하고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대창스틸의 경우 동반성장지원단의 도움으로 아드 재고관리 표준화 작업을 거쳐 기존 크레인들을 IT 기반 자동화 크레인으로 개조하였고

아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납기단

축(80 → 65일), 재고감축(45 → 35천톤), 불량률 감소(1,300 → 700ppm) 등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올해도 동 사업 참여기업은 동반성장지원단을 활용한 현장방문과 지도를 통해 포스코 혁신방법론 전수 등을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사업 초기부터 포스코 그룹 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추진단의 현장밀착형 구축 가이드를 받을 수 있으며, 환경·에너지·설비 진단 등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까지 사후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사업 초기부터 구축 이후까지 전주시에 걸친 기업별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ESG·뿌리 기업 등 테마별 특화방식을 통한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적용 또한 적극 지원한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전주덕진경찰서로부터 보이스포싱 피해예방 감사장 받아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한 솔내지점 김현경 과장·정완오 대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보이스포싱 범죄를 신속히 차단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한 공로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인병)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장 수여식에는 백종일 은행장과 김인병 덕진경찰서장 외에 수상자인 솔내지점 이은영 지점장, 금융소비자보호부 김현경 과장, 전주첫마중길 지점 정완오 대리가 참석했다.

솔내지점은 경찰 출동 요청 전수 최

다 지점으로 현금 인출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범죄 예방에 앞장섰으며, 김현경 과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완오 대리는 보이스포싱 예방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 2천만원을 보호한 바 있다.

전북은행은 평소 보이스포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실전 대응 교육과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활동 뿐 아니라 의심스러운 고객 인출에 대한



112신고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보이스포싱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제37회 중소기업 주간 개막

중기중앙회, 차기정부 정책방향 대토론회 등 84건의 행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7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84건의 중소기업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매년 5월 셋째 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으로 올해는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

8일 문화경영 확산과 문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를 시작으로, 12일에는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계·학계·정부 인사들이 참여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거래기반

확보를 위한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13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15일) 등이 개최될 예정이며, 기업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성공을 부르는 소상공인 현장클리닉'(18일), 'I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28일) 등을 비롯해 국민과 함께하는 '노란우산 가족사랑 그림'등시 대회'(17일, 국회잔디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금리·고관세뿐 아니라 내수침체와 저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대선을 앞둔 만큼 중소기업 주간에 주요 정당 인사를 초빙해 차기정부 중소기업계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사일정·장소 등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jugan.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기자



한국전력 전북본부 무주지사는 지난 7일 덕유산 국립공원과 '국립공원 산불예방 및 전력설비 보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탐방객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덕유산국립공원-한전무주지사, 탐방객 안전 업무협약

한국전력 전북본부 무주지사는 지난 7일 덕유산 국립공원과 '국립공원 산불예방 및 전력설비 보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인력·장비 적극 활용 △위해 개소 발견 및 정보 공유 △탐방로 주변 설비에 대한 누설전류 측정 △수목 등 외물에 의한 전력선 훼손 위험개소 신속 제거 △안전 이격거리 재검검 △노후 설비 적기교체 등 탐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부분을 조기 발견하여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아울러 최근 대형화 되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전선로 순시 직원의 산불감시 요원화에도 다함께 의견을 모았다.

최종근 무주지사는 “노후 설비의 적기교체와 위험 개소 신속 제거를 통해 산불 예방과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MOU가 지역 안전과 국립공원 보호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